

삭 역시 축복을 말함에 완전한 자에게만 얻을 수 있는 계시된 뜻에 매여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뜻을 멀시하고 완악하여졌다. 에서도 그 축복을 얻음에 모든 것을 제쳐 놓고 한가지 곧 회개의 길에 매여 있음을 안다. 그는 그것을 완악하게 거절했다. 리브가며 야곱역시 선택의 말씀을 성취하심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만 되어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찌언정 조금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님을 알았는데 저들은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완악하게 되었다. 여기에 완전함에 대해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리브가로 말하면 큰 속이는 일의 계획에 자기가 먼저 꾸몄다. 야곱이 이를 머뭇거릴때 그것은 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단지 죄 발각될까 싶어서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심판을 두려워한 것이다. 대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죄는 언제나 저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가 이제 생각해 내는 것은 죄의 발각은 저주를 가져오니 아버지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서 저주의 말씀을 생각 나지 않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리브가의 시키는데로 따르는데 대한 야곱의 불안도 육적이다. 리브가는 저주를 우습게 여기고 그 저주가 내게로 돌릴찌어다하여 이들은 죄와 저주를 모두 우습게 여긴다. 이들은 믿음의 법을 곤경하기 때문에 아무런 걸리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생각해 내고 어떤 특수한 일이라도 (예외적인 것이라도) 정욕으로 이루려고 하고 속임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경건하고 이를까지 들먹인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나이다(20). 이들은 선택되었다는 강한 환상에 사로 잡혀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입장이 후에 이스라엘 이 바벨론 포도를 슬퍼하는 모습이다(암3: 2).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는 유대인들의 정신도 같은 마음 상태이다.

이렇게 볼때 모든 편에 죄가 처음부터 내재하고 있고 베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저들이 언필칭 모두 믿음으로(pistei)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언약의 규범에 스스로 조심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 오직 재앙만 따라온다. 가까이 개인적으로 이야기의 결과에서 분명하듯 저들 죄악들의 징벌치는 않는 것은 아니다. 에서는 자기 장자 명분을 멀시한데 대해 이 속임을 당하는 징벌을 받는가하면 야곱은 하란에서 라반과 함께 어렵게 살아야 했다. 이삭은 놀라움으로 자기 실수를 보게되며 리브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두 아들에게서 각각 삶의 길로 나간다. 이 모든 것은 24: 27에서 나오는 목가적 생활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히11: 28 ; 12: 16. 17)

## 육적 모든 길에 대해 승리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창 27: 20-28: 9

박 종 칠 교수

### A. 주석적 고찰

1. 20절이 “속히 잡았느냐”(אָזַדְתָּ בְּמִזְבֵּחַ Ges-K. §114n Jouon §124n)와 “만나게 하셨다”(גַּעֲמָה)는 동사들에 관계된 목적어가 없다. 그리고 자기 일이 잘되게 하신 분을 말할 때에 야곱은 “자기”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당신의)”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므로, 이 사기극을 벌임에 “나의”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21절의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גַּעֲמָה)← גַּעֲמָה 의 형태에 대해서는 Jouon §820를 보라)고 에서가 말한것은 그가 듣는것 보다도 만지는 것에 더 신뢰하려고 한 것이다.

2. 23절의 “분별치 못하고”(וְלֹא יָדַעַת ← גַּעֲמָה의 히필형)“축복하였더라”(גַּעֲמָה)는 말에서 어떤이는 (Gunkl, procksch등) 축복의 내용이 곧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문서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21-23 절은 E자료로 24-27a를 J자료로 본다. 그래서 E.A.Speiser도 두번이나 나타나므로해서 (23, 27)문맥의 내적 논리성이 깨어진다하여 “still, on he was about to bless him”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B.Jacob는 다르게 본것 같다. 그는 이렇게 번역했다. “그를 환영하고 인사하고 그를 칭찬했다”(or hiess ihn willkommen, begrusste, lobte ihn)고 했는데, 이삭이 야곱을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는데, 여하한 방법으로 확실히 확인하고 난 후로는 그는 에서를 가까이 오도록해서 만져보고 그를 환영해서 본질적인 축복을 할려고 했다는 뜻이다(비교19절). NEB는 “and that is why he blessed him”이라고 한다.

3. 28절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שְׁתִּיכְלָפֶךְ כְּבָשׂ)에 대해서는 Vetting §70. b. 3, J. Pairman VT 19, 1969 pp 168-170, F.C. Fenham VTzz 1972, pp293-299을 보라. Fenham는 곡식과 포도주 결합은 이스라엘의 농업활동들, 즉 밀과 포도원의 재배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원”(vineyard)이라고 한다.

H.C.Ginsberg와 De Moor는 창27:28, 39과 유가렛본문 38-39절과 대조시키는데, De Moor는 후자를 이렇게 번역한다. “그녀는(Anat) 물을 펴 올려서 땅의 기름, 하늘의 이슬로 스스로를 씻었다”고 번역하며, Ginsberg는 “그녀는 물을 약간 길러서 목욕을 한다. 하늘의 기름짐, 하늘 이슬”이라고 번역한다.

#### 4. 30절의 “나가자 곧”(אֵלֹא תַּהֲלֵל)

(G.K. §164b note를 보라)은 우리 한역대로 야곱이 그 아이 이삭 앞에서 나가라 곧 그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는 의미로 보통 보는데, Holwerd는 이삭이 축복을 끌을 떨 때쯤에서와 야곱이 이미 나갔을 때에 첫째로 에서가 왔다(Jacob langst hinausge gangen war, da erst kan Esau)고 한다. 에서의 “음”은 그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가 사실 이삭에게로 왔다는 것은 아니다.

5. 39절은 주석가들에게 논쟁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28절에 야곱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הָנָמָן יְמִינְךָ מִןְמִינְךָ לְבָטָמָה מִןְמִינְךָ גָּתָה)와 같이 에서에 대해서도 39절에 “보라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와 내리는 하늘이슬에서”(הָלָקָה מִןְמִינְךָ לְבָטָמָה וְגָתָה מִןְמִינְךָ גָּתָה)되어 있어 우리말 번역이 아닌 원어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에서 역시 야곱처럼 같은 축복을 받은것 같다. 이에 대한 해결을 주석가들은 28절의 “으로”된 1모를 “partitive”로 39절의 “에서”로된 1모를 privative”로 보고, 한역은 “에서 뜨고”라고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39절이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Driver는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한다. “두 축복의 대조는 28절에 (여기서는 곡식과 포도주가 언급되어 있는데 39절에는 없다) 비교되는 39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과 40절 비교에 있다고 한다.

Jacob주석가는 “Privative”번역개념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번역한다. “보라 땅의 기름짐에서 너의 거처가 될것이다”(Siche, your Fettigkeiten der Erde sei dein Stig)그의 극된 논점은 “Privative”개념에 따르면, 축복과는 관련이 없고 저주와 멸시 뿐이라고 보는것이다. 그러나 Seir은 사실 황량한

곳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즉 신2:5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에돔 소유를 원했다는 전제를 하는 말이고, 민20:17절에 의하면 밭과 포도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야곱에게 생산적인 땅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땅이 에서에게도 돌려질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Jacob의 논증이다. 멜리취는 39절의 문맥상으로나 언어적으로 볼때에 “Privative”의미라고 강조한다. 즉 “너의 거처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 동참할 것이다”(Vulg, Luther)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에돔땅에 동쪽지역에서 비옥한 경작지와 계곡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세계에서 가장 황량하고 불모지 산들로 비생산지라고 한다. 더우기 이삭이 야곱에게 넘치는 생산적인 축복을 나눈 후에 같은 축복을 에서에게 허락했다는 가당치 않다고 멜리취는 말한다. 그리고 언어적 논증으로는 39절의 “לְעַלְמָה”은 “으로부터 떨어진다”(druipend)는 뜻 우리 한역은 “…에서 뜨다”로 번역한다.

막1:3절도 1모의 rpivative의미를 가진다. 신2:5은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이 생산성이 있다해서 원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멜리취는 이 언어 논증에 28절의 1모은 그 נָא 1모?와 연결되어 있어 분배적 (Partitive)의미가 직접으로 두어지고 있고, 그러나 39절은 그 נָא 1모 פְּנִים 1모와 연결되어 있어 어떤 지역성을 나타내어 privative의미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Gipsen는 이 두 견해들을 언급한 후에 1모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즉 문맥적으로나 후대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봐서는 privative 의미 방향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에서는 호의적 의미로—이삭은 비호의적 의미를 의도하였어도—생각하였겠다고 한다.

6. 39절 뉘룩모의 뉘룩이 명사로서는 높은곳 (dat, wat boven is)다. (Gk §119. Houtman, Hemel p41, 184) 그런데 여기 장소성 (daarboven)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부터”(van booven)라고 볼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 “the dew of heaven on high”(R.S.V), the dew of heaven above (NEB, NIV)로 각각 번역한다.

7.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כִּי־תִּלְשָׁלַח בְּלֹא־בָּגָד)의 그 1모는 그 1모의 히필형인데 (비교 시55:3), Qal형은 호12:1에 나타난다. 아카리안어 radur에서 “떠돌아 다니다”는 뜻이 되면, 그뜻은 에서가 야곱에 의해 절세없이 강압되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며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알고 명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즉, 너가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인정할 때엔 너는 장래를 가진다고 Holwerdar 말한다.

8. 야곱에 대한 축복은 결국 3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 a) 유산지와 풍성한 소산에 대한 약속 (새 낙원이며 누구도 셀 수 없는 보화에 대한 약속이 그림과 형태로 두어라는 것이다.)
- b) 열강 가운데서의 야곱의 위치는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인데, 리브가에서 주어진 선택과 관련해서 볼때에 형제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 c)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은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가 세상심판으로 놓여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창17장의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선택하신 말씀과 긴밀히 관련되고 있다.)

## B. 토레도트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의 계시의미

1. 하나님의 태어나기도 전에 두 형제간의 관계에 대해서 해둔 결정에 대해서 순복하기보다는 각각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역사적 실현을 고대해 보는데 야곱과 리브가는 그 실현을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힘으로 잣아하여 축진시켜 안전하게 하려 하고 있다. 이삭과 에서는 이에 반해 그러한 간여를 통해 그것들을 저지하려하고 방해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은 형언키 어려운 비애를 자신들에게 가져왔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체거하지 못하고 저들의 죄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고뇌를 경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실현을 보게 했다. 장차 올 것들을 (*ta mellonta*) 믿음으로 쟁취하기보다는 그 유산을 자신의 방식대로 찾으려고 하는 육체적 노선을 보았거니와,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모든 육체에 대해 승리하는 것이다.

2. 이삭으로 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강하여 육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반대하여 극도로 자기선험 하는대로 행하려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유산자가 될수 있겠는가? 지금 이삭은 야곱의 간교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삭에게 자녀들 출생계시를 알림에 축복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범이 없다. 축복을 얻는 규범은 그 후보자가 완전해지는 것과 (*tamim*) 아브라함의 길로 행하는 문제일 뿐이다. 지금 에서 경우는 이렇지를 못하고 언약을 멀시하니, 이삭이 에서를 간파하라고 명령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 에서는 하나님과 선택의 말씀을 실현해 가는 방식에 대해 보게되는 것이다. 지금 큰자가 언약을 멀시하니 이삭은 그를 이상더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자신의 육체적 선호를 유지하는 것이다.

3. 이삭이 에서를 한사코 언급하고 축복하려고 한 것이 결국 메시야적 축복을 바라는 것이다. 인간적 간교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소름끼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본다. 이삭은 사냥고기를 좋아하며 한사코 언제나 에서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냥에 능숙한 털있는 손이며 들의 향취나는 옷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사냥고기가 결정적 순간에 운명을 지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가도록 내버려두어서 그손들이며, 그 옷들의 향취며, 그 사냥고기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나 이삭이 본질적으로 뒤바꾸어졌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완전히 부서진 것이다. 에서가 사라진 그곳에 이삭은 메시야 약속의 진전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무기들—그것도 이삭이 좋아하는 수단들—로 납작하게 만들었기에 산산히 부서진 모습을 보게된다. 이삭은 에서의 동생이 사기를 했구나하고 놀랄 뿐만아니라, 그것은 야곱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 자신임을 깊이 확신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축복을 무효로 할수 없음을 아는바다. 에서는 두번재 계열의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 이삭은 이상더 주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이삭은 야곱을 축복에서 근본적으로 제외시킬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삭 자신은 첫 축복들로 상당히 축복하였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야곱은 어떠한 축복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는 다시 죄의 표식이다. (Procksch: dass Isaak sich mit dem ersten Segen ziemlich ausgesegnet hat, zeigt dass er ursprünglich Jacob keinen Segen zugedaeht hatte, Wieder ein Zeichen der schuld cprochoch) 그 의도는 야곱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에서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삭은 자신의 배타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배타적이 되도록 할수 있었지만, 에서에 대해서 이상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런고로 이삭에게는 소름끼치는 심연에 대면하게 한것이다.”

4. 동일한 하나님의 소름끼치는 엄위하심이 에서에게도 왔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법을 유지하심과 같이 에서에 대해서는 은혜의 법을 견지하시고 계신다. 축복의 길은 은혜의 법, 믿음의 법, 회개의 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길을 멀시하여 왔고, 지금도 천시하고 있다. 그가 믿고 확신하는 바는 ‘오늘날은 사냥하는 일이 최후 결정적인 일이야’하면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지 말아야 할 교훈을 이삭에게서 얻지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적 주장이며, 방법을 모두 거꾸로 하며, 자기은혜의 방법이며, 기쁘신 뜻을 견지하시는 분을 멀시하고는 사냥이 최고며, 보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그

를 자기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는 ‘그래! 사냥이 최후 결정을 해 준것이야’ 하고는 에서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에서가 맹세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던” 맹세는 식은죽먹듯이 잊어버리고 아무런 맹세도 안한 것처럼 맹세하여 에서가 야곱을 속인다. 지금 하나님이 노여워해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임을 통해서 나의 기쁘신 뜻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에서는 자기가 강해지려고 추구하는 그 속임 때문에 축복이 에서는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에서에게 한가지 사실이 남아있다. 그가 여전히 장자가 아니냐? 나는 아버지의 장자이다고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을 받아서 그때 자연적 장자권이 결정적인 것 같이 이제는 자연적 수단으로 그 권리를 찾던 그 사람이 유산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브가가 간여한들 거기서 아무런 개선될 것이 없다. 오직 베림이 됨이 철근같이 확고하게 되는 것뿐이다. 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자연적 수단이며, 자연적 방법이라고 말하여 있지만 지금 막상 발견하는 것은 모든 자연적 방법들이 소진된 것이다. 그러니 여기는 신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그에게서 죄와 심판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에서에게 지금 심판이 온다. 27: 33에 아주 인상적으로 놀리는 장면이 나온다. 에서의 모든 길이 막다른 바닥이 나타나는 것이다. 에서는 아주 격렬히 방성대곡하는데, 그것은 은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자 야곱에 대해 분노하고는 있으나, 에서 자신의 속임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36절에 보면 장자된 명분을 팔았던 것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오직 여기에는 야곱에게만 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자신이 천시한 것을 한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고로 여기 저주가 소름끼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에서는 자기 소명과 자기 장래를 약속의 땅의 축복 권리 밖에서 선택한다. 그리하여 자기 주소는 거기서부터 뜰것이다. 그는 칼의 생활을 원한다. 환언하면, 하나님은 에서 자신이 먼저 선택하였던 것 이외달리 어떤 것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증거는 그가 동생을 살해하려는 계획에서 분명하다.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다. 30절이하에 에서가 사용하는 기원형(jussive)은 19절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사용한 명령형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에서는 스스로 회개한 것은 아니다. 그의 눈물이 순진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것은 헛족족의 딸들과의 결혼이 자기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26: 34-35), 이로인해 야곱을 라반으로 가게한 것을 보고는 그는 짐짓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다(28: 9). 이는 가정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기는 하나, 이는 전적 은혜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마엘에 관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21: 10). 그러니 그의 눈물을 흘리는 개종이란 것이 약속을 버리는 것이요, 기업 밖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기”(verwerping)를 말하는 자는 그것이 온 역사적 범주와는 분리될 수 없음을 볼 것이다. 그것은 에서의 운명이 아니라 그에 대한 외로운 심판인 것이다. 히11: 17에 이른바와 같이 “저가 그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벌린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6. 하나님은 이삭과 에서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저들의 죄대로 심판하시는 아이러니 가운데 자기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듯 리브가와 야곱에게 있는 육에 반대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유지하신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큰 투쟁 가운데서 결정적인 것은 간교를 통해서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그래 간교를 통해 오늘날 너희들 형편이 되어 너희들 한울의 실오라기를 짜는대로 될 것이라고 한다. 간교가 성공하고 모든것이 실체적으로 되어가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속에서도 한가지 길 끝, 밑음의 길이 있다. 환언하면 그 간교의 성공이 축복으로 저들을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에서는 당시 야곱을 죽일려고 하고 있고, 리브가는 사면초가가 되었다. 한낱에 두 아들을 잃을 지경이 되니 모든 것 다 잃어버릴 경우가 된 것이다. 에서는 베림바되고 야곱은 도망가야 될 형편이다. 리브가는 이제 이삭에게 야곱이 에서처럼 이땅의 딸들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믿음의 동기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리브가는 모든것을 잃게 된다. 에서와 야곱이 진장하니 야곱은 떠나가고 리브가는 그를 다시 못보게 된다.

7. 그럼 야곱은 성공하여 축복을 받은것 같아 보이나,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삭이 반복해서 축복한다(28: 3, 4). 나그네의 땅을 유산으로 소유한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재간을 부려 무엇을 얻었느냐? 약속이나? 선택의 말씀이냐? 그러나 이것들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가졌던 것이다. 이 모든것이 후에도 확장된 것 보다는 성취가 더 멀어지는 것이다. 유산자로 지목된 그 사람이 축복 받는 그날에 떠나야만 했던 것은 안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 야곱은 이 모든것 후에 무엇을 얻었느냐? 리브가는 낙관주의적으로 보고 에서의 분이 풀리면, 야곱이 들어오게 될것이라고 보지만, 그녀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아올 쪽에 에서는 끝끝내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그러므로 오직 한가지 남는 것이 있다. 전체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연결고리를 통해 자기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약속의 성취로 말하면 오직 한가지 해결이 있다. 하나님께서 미로에서 오직 한가지의 출구가 있다. 은혜요. 선택이요. 믿음이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는 것이다. 여기 시편42:1에 이른 바와 같이 진 여정이 예비적인 것이다. 오!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은 기회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 마가복음 8:11—13에 나타난 표적 보여 주시기를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분석

손 성 은\*\*

### 1.1. 도입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하는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다.<sup>1)</sup>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는 목적이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목적 또한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계시자이면서 동시에 계시받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표징<sup>2)</sup>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것은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마가복음 8장 11-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그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신 그의 사역의 목적을 잠시 잊어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sup>3)</sup>서라기 보다는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통해서 알

\*\*교회문제 연구소 간사. 부민교회 강도사.

1) 요 20:30-31

2) G.W.Bromiley 편, 칫텔단권신약원어신학사전, 요단출판사번역위원회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86, p. 707.

3) 막 6:5,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레이아나우스와 리델보스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그레이아나우스는 나사렛의 주민들이 병자들을 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반